



# 맥(脈)



김 홍 국  
(북부소방서)

맥 맥 맥 쓰럼 쓰럼 쓰럼.

온세상이 뿔뿔 속처럼 숨이 콕콕 막힌 지경인데도 저놈들 만든 시골 시골 배나 신이 나는 모양이다.

벌써 며칠째 구름 한점 없애 이글 거리는 태양일은 바닷물까지라도 끓여 놓을 모양이다.

급년 장마도 이제 멀리 갔다는 관상대의 보도를 듣고는 동료 직원들이 부러워 했던 휴가기간인데 이렇게도 푹푹 찜뽀잖아. 휴가를 받고 3일간은 아이들과 만화도 보고 바둑도 두고 오락도 두면서 집에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부산, 부산하는 집 사람에게 끌려나오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된 것이다.

과히 경사진 언덕도 아닌 태종대 오갯 마루를 비지땀을 흘리며 터벅 터벅 걷고 있는데 "나쭈봐요" 또 등뒤에서 불러댄다. 땀은 나보다 몇 배나 더 흘러면서도 사진찍을 만한 장소가 있으면 엉라없이 불러세우는 열성에 감탄하며 어깨에 맥 카메라를 내리며 뒤를

돌아보니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며 다가온다.

"좀 천천히 가요. 쫓아 오느라고 뺨긋했는데 그만..." 발을 쳐다보니 하얀 신발끈이 떨어져 너풀거린다.

폼쩍없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니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 한두번 당한 고역인가. 놀랄 것도 망신스러울 것도 없다. 일백년은 되었을 성실은 노송 밑에 앉아 첨단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부채질을 하며 옆에 앉아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신발 회사를 원망하며 중얼대는 처에게 나도 중얼 중얼 대꾸했다.

"신발 회사를 원망할 일이나난데 뭘 그대. 이런 신발은 양띠, 토끼띠, 원숭이띠 아가씨 들이나 신는 신발인데, 소띠, 코끼리띠, 하마띠 등의 여자가 신으니 온전할 리가 있다." 입을 삐죽하면 서서도 마음 좋게 웃는다.

어쩔거나 옷핀 두개와 손톱 깎기로 간단히 수선을 끝냈다. 처는 이리저리 신발끈을 당겨보며 좋아한다.

"내일 고속버스를 탈 때까지 만이라도 토끼띠 아가씨처럼 사뿐사뿐 좀 걸어야겠어."

맥 맥 맥 쓰럼 쓰럼 귀가 퉁퉁 하도록 시끄럽게 울어대지만 그래도 저놈들의 소리가 더없이 시원하고 좋기만 하다. 저놈들의 목소리는 내가 어렸을 적에 들던 소리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또 저놈들의 소리를 들노라면 남다른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한창 개구장이 시절인 10살때로 기억된다. 우리집 뒤로는 큰 산이 있고 산 밑에는 면소재지에 큰 마을이 있으며 집 앞으로는 가뭍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높이 솟은 포플러 나무들이 서있는 뚝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그 아래로 큰 바위가 마주 서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바위가 또한 물속에 잠겨있어 대낮에도 목욕하

기가 좋은 곳인데 어느날 장난이 심한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이웃 동네 처녀들이 목욕을 하러 가는것을 보고 아이들을 따라 수수발과 콩밭을 기어 느티나무 밑 썰레덩쿨 숲속까지 숨어 들어가 목욕 길게 뺨고 내려다 보려고 할때였다. 느티나무 위에서 맴 맴 맴 귀가 따갑게 울어대던 매미가 갑자기 쭈드득하고 날아간 곳을 무심코 쳐다본 나눈 옆에 있는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해보이고는 화다닥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데, 다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 뒤를 따라 도망나온 일이 있었다. 내가 보고 놀랜 것은 매미가 날아간 나무 위로 어른의 팔뚝 만큼이나 굵은 구렁이가 비늘을 비늘뼉들 거리며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몽든 그 후로는 먼곳에서라도 느티나무가 서있는 곳을 바라만봐도 등골에 식은 땀이 솟아오르곤 했다.

장난도 심했고 겁도 많았던 그 시절이 더없이 좋았었다. 며칠전 막내아이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나말야, 누나랑같이 시골 할머니 집에간다. 응, 있고 싶은대로 있다 올거야. 그대, 갔다와서 진화할게 잘있어." 인사까지 제법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할머니는 분명히 인천에 살고 계시고 인천이 서울과 같은 도시라는 것도 막내놈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시골이라고 했을까?

아이의 소중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어째서 인천이 시골이냐고 묻지를 않고 있다. 시골에서 살아본 일이 없는 아이라서 시골을 동경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할머니가 계신 곳이면 무조건 시골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까, 아몽든 도회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절벽위에 서서 파도에 흔들리는 유람선을 타야하는 아슬 아슬한 곡예를 하면서 배에 올랐다.

파-란 높은 하늘위에는 흰구름 한 점도 고고히 떠있다.

볼모지였던 섬을 제방으로 연결하고 그곳에 동양 최대의 해양대학을 세웠다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가 역센 갈매기 소리에 부서져 흩어진다.

병풍처럼 우뚝선 석벽위에는 하얀 등대가 푸른 숲을 배경으로 더욱 청초하게 보인다. 등대! 하면 낭만이 있고 고독이 있는 곳이다. 그 고독한 삶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장교 출신이 더욱 많이 있다는 선주의 말들이며 칠혹같이 어두운 밤 모진 비바람과 싸우는 아주 조그마한 나룻배의 운명을 상상해 본다.

한때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려진 지도층 인사들의 한심한 내용이 담긴 신문들을 보던 어느 가내공업의 여공은 "왜들 이런다지" 혼자 중얼거리며 보던 신문을 던졌다가 다시 집어들어 의자속으로 감추고는 굳어진 표정으로 일에 열중하더라란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어쩌다 지도자급 인사들의 실수로 인해 받은 조국의 아픈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며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언론인도 지식인도 아닌 가냘픈 여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산물은 어느시대 어느 층에도 있게 마련이다. 이제 다 흘러보내자. 비운 뒤에 탁류가 흘러 바다로 숨어 버리듯이 모든 것을 시간과 함께 역사속에 묻어버리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는 우리 2 세대의 눈빛은 가까운 발밑이 아닌 먼곳을 바라보며 눈을 빛내고 있다.

항구도시 부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온통 파헤쳐지는 진통을 겪고 있다. 파괴는 건설이라고 했는가?

엄청나게 큰 철주들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땅속으로 깊이깊이 박히고 있었다. 산을 뚫고 고속 도로가 이어지고 댐을 막아 자원을 저장하고 바다를 매워 땅을 넓힌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힘과 기술로 이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 국력

은 어느 정도일까 하던 궁금증은 바로 제23회 로스엔젤리스 올림픽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또는 보리밥과 고구마로 채우면서 뼈를 깎는 강훈련을 거듭한 대한의健儿들이 강대국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을 하나씩 차례로 무찌르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우뚝 서고 있다. 레스링에서 유도에서 복싱에서 양궁에서 그리고 농구와 핸드볼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그리고 동메달 7개의 결과가 우리의 국력임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기가 제양되고 애국가가 우렁차게 장내를 메울때 선수와 임직원은 물론 모든 해외동포와 우리 온국민은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찮은 일로 사이가 나뉘던 사람들도 그간에 줄렬했던 자신들을 후회하며 손을 마주 잡았을 것이다.

고속버스는 등의 땀 방울을 금방스며들게 하는 지원함이 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고 있다. 서울행 고속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목적지까지 편히 모시겠다는 인사하는 안내양의 눈매가 하도 시원스러워 쳐다보다가 "뭘 그렇게 쳐다봐요!" 소리와 함께 팔꿈치에 습격을 받

으며 웃었다.

산과 들, 논과 밭이 빙글 빙글 돌며 뒤로 미끄러진다. 산이 있고 개천이 있고 포플러가 하늘을 닿을듯 뻗어있는 뚝 길을 따라가면 오밀조밀 평화로운 마을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금수강산이다.

저만치 88올림픽 고속 도로의 새로 단장한 모습이 경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터널속으로 뻗어져 있다.

국가와 겨레의 동맥인 고속도로가 동서남북 구석 구석에까지 뻗어 있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넘치는 힘을 공급하고 있다. 강력한 이 힘은 86 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을 빛낼 것이다.

지금은 나약했던 토끼모양의 옛날의 조국이 아니다. 동해를 박차고 대륙을 움키며 우뚝선 호랑이가 저 멀리 광활한 대지위에서 1천5백여년 동안이나 비바람과 싸우며 우뚝 서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노래하며 포효하는 모습을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본다.

가난 때문에 빼앗기고 짓밟히는 서러움을 당해왔던 이 민족위에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

## 사랑하리라



정 기 백  
(점검 1부)

차라리 개가 되리라.  
차라리 개가 되리라.  
아무런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개가 되리라.  
그래서  
길위에든 집에든  
안팎 어느 곳에서든  
입맞추고 코마주대며  
영덩이 비비며  
사랑을 하리라.  
사랑을 하리라.  
한곳  
아무런 꾸밈도  
위선도 없는  
개가 되리라.